

《정조실록》

《정조실록》에 기록된 정조(正祖)의 문치(文治)와 무략(武略)의 국가경영

“왕궁 호위가 어찌 이럴 수 있는가.” 1777년 7월 국왕 시해를 위해 경희궁에 침입한 자객을 목격한 정조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날 밤 늦은 시각까지 책을 읽으면서 잠들지 않았더라면 과연 어찌 되었을까를 생각하니 아찔했다. 자객은 궁궐의 회랑 지붕을 타고 왕의 침소 바로 위까지 침투했었다. 발자국 소리를 들은 왕이 내관들을 불러 급히 침소 지붕 위를 조사하자 자객은 기왓장을 내던지고 모래를 흩뿌리는 등 귀신 흉내를 내다 도망쳤다(정조실록 1/7/29).

글_박현모

더욱 놀라운 것은 왕이 경희궁을 떠나 창덕궁으로 이어하자 불과 열흘 만에 그곳에 다시 자객이 침입한 사실이다. 가까스로 체포한 자객을 국문한 결과 역모의 전모가 드러났는데, 주동자는 즉위 초 왕의 외척 제거작업에 불만을 품은 홍상범이었다. 그는 정조를 죽이고 종친인 은전군을 새 왕으로 추대하려는 계획에 따라 궁궐 안의 내시·궁녀는 물론이고 강용화라는 호위무사까지 연계해 ‘반정(反正)’을 기도했다. 왕을 지켜야 할 궐내 호위무사와 내시가 50여 명의 외부 불순 세력과 결탁해 시해역모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정조는 발각 뒤집어졌다.

무인(武人) 정조, 그의 무예와 병법 이해

그런데 정조의 신변 불안은 사실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었다. 정조 자신의 말처럼, 한밤중에 방문을 열고 나서면 밖에서 서성이든 자들이 시위하는 자인지 아니면 시해하러 온 자들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심야의 왕궁은 늘 위험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조가 취한 조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 정조 자신이 직접 무예를 닦고 병법을 익히는 일이었다. 사극이나 영화에서도 소개되었지만 정조는 뛰어난 궁사(弓師)였다. 그는 창덕궁 후원에서 무사들의 활쏘기 시험을 치르는 한편 친히 나서서 활을 쏘기도 했다. 보통 5순(巡), 즉 50발의 화살을 쏘곤 했는데, 8순과 9순, 그리고 어떨 때는 10순의 화살을 날리기도 했다(정조실록 16/10/30).

뿐만 아니라 정조는 말 타기를 좋아하여 서울 근교를 행행(行幸)할 때나, 생부 사도세자의 능이 있는 수원화성에 갈 때는 황금갑옷에 백마를 타고 직접 군대를 지휘하기도 했다.

병법(兵法)에 대한 식견 또한 높았다. 그는 군병과 무기 등 군대의 외형적 요소(形)와 장수의 작전능력(神)을 잘 조화시킬 때 전투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또한 “군대는 임기응변(奇變)이 중요한데 무슨 질서가 필요한가”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것은 모르고 하는 소리다. 용병(用兵)을 잘하는 자일수록 변화무쌍하면서도 더욱더 질서를 잃지 않고, 질서를 잃지 않아야만 더욱 변화무쌍한 것”이라고 하여 군대의 행렬과 좌작진퇴(坐作進退)와 같은 기초 훈련을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정조는 문약한 궁궐 안의 왕이 아니라 무예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자기 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직접 군대를 지휘하면서 익힌 병법을 현실 정치에 적용하려한 무략(武略)의 군주였다.

둘째,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궁성 호위를 전담하게 하면서 국왕 친위부대를 만들었다. 정조는 측근인 홍국영에게 수어서, 총융사를 거쳐 궁궐 호위의 주관부서인 금위대장을 맡게 했다. 홍국영이 지휘하는 금위군으로 하여금 병조와 도총부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궁궐 호위의 임무를 총괄했다. 그리고 다른 군영들의 잘못을 수시로 적간(摘奸)할 권한까지 부여했다(김준혁 2007).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데 도움을 준 김종수를 발탁해 병조판서에 임명했다.

친위부대 창설과 군 개혁 방식

이어서 정조는 국왕 친위부대를 창설했다. 궁궐 호위 책임자의 교체나 금위군의 인원 증가와 같은 조치만으로는 국왕 호위체계를 개선할 수 없으며, 결정적으로 훈련도감이나 금위영의 기세를 제압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777년

11월 정조는 창덕궁 건양문의 동쪽에 숙위소를 설치하고 도승지와 금위대장을 겸임하고 있던 홍국영을 숙위대장으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정조가 특히 유념한 것은 군인들의 반발을 예방하는 일이었다. 수어청과 어영청의 통폐합 논의 때 지적된 것처럼, 당시 군인들은 군 개혁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조는 통폐합되는 군영들의 군인들을 다른 군영으로 인계시키는 한편, 기량이 뛰어난 자들을 뽑아 창설된 친위부대에 배속시켰다. 이렇게 시작된 국왕 호위부대가 1785년(재위9년)에 장용위로 바뀌고 다시 궁궐과 수원 화성에 각각 내·외영을 둔 장용영이라는 막강한 친위부대로 발전한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셋째, 병조판서 중심의 군령 지휘체계의 통일이다. 정조는 집권 초 당시 군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가병(家兵)의 폐단과 다문(多門)의 근심”을 꼽았다(2/6/13). 한국 현대사에서도 군내 사조직이 군령 체계를 장악해 대통령-국방장관-참모총장의 공식적인 라인을 마비시켜 하극상의 쿠데타를 일으킨 것에서 볼 수 있듯이(12·12사태), 일원화되지 못한 군령체계는 자칫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조시대의 다섯 개의 군영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각 군영들은 각기 특정 정파의 이해에 얽혀 있었고(오군영의 사병적인 성격=家兵), 군령체계 역시 무질서했다(多門).

정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문치(文治)로 나라를 세우고 무략(武略)도 또한 갖추었는데” 임진왜란 이후 여러 개의 군영이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신설되면서 군령 체계가 흐트러졌다. 게다가 봉당과 군영들이 유착되면서 각 군영의 대장들은 국왕 직속의 병조판서의 명을 따르기보다는 자기를 후원하는 봉당 영수(領袖)의 지시를 더 중시하기도 했다. 결국 정조는 “군대란 대소가 서로 연계되어 상하의 차서(次序)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2/8/13)면서 병조판서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즉 종래 군영대장이 행사하던 후임자 추천권을 없애고 병조판서에게 그 인사권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병조가 오군영을 지휘하게 하여 국왕-병조판서-군영대장으로 일원화된 명령체계를 수립했다.

“문과 무는 서로 보완하는 효과 있어”

“우리나라도 또한 군사의 규율이 있다고 할 만하다.” 1790년(재위14) 11월 한강에서 실시된 장용영과 훈련도감의 합동 군사훈련을 마친 정조는 연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국왕의 지휘에 따라 모든 군대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으며, 약속된 불화살이 오르지 군막은 말할 것도 없고 “강변의 마을 집까지 새까맣게 되어 한 점의 불빛도” 볼 수 없었다. 관민 협조가 완벽히 이뤄진 것이다. 특히 장용위가 국왕의 행차 이동 등 기동훈련을 실시할 때는 “사람과 말이 나는 것 같아 신병(神兵)과 다름 없다”면서 모두들 감탄을 금치 못했다.

즉위 초 국왕의 신변조차 불안했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런 변화는 실로 상전벽해와 같은 것이었다. 정조는 계속해서 “문무의 겸전”을 강조하면서 문신에게는 활쏘기를 연습 시켰고, 무신에게도 책을 읽혔다. 그에 따르면 “문과 무는 부족한 것을 서로 보완하는 효과”가 있어서 만약 “문약(文弱)에 이르지 않고 무력을 남용하는 데에 이르지 않는다”면 관대하면서도 질박한 인재가 많이 배출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요순시대와 같은 서로 협력하는 정치”도 기약할 수 있었다. 몸 수련을 철저한 자기관리와, 깊이 있는 병법의 연구, 그리고 그에 기초한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국방개혁... 바로 이것이 정조가 말하는 문치와 무략의 국가경영의 요체였고, 다른 모든 개혁을 가능케 한 토대였다. ㉔

박현모 님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교수이며 세종국가경영연구소 연구실장이다. 저서로는 《정치가 정조》 《세종의 수성(守城) 리더십》 등이 있다.

